

명백 明白

명후이간행물
MING HUI.

94

하늘과 눈

처음으로 경락을 발견
2천 년 중국의학이 났다

한 주에 세 차례 파룬궁과
접촉에서 발생한 신기한 일

신의 (神医) 손사막
도를 얻은 고수였다

목차

Contents

2022 년 7 월 제 94 호

편집자의 말

4 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는가?

혜안으로 관찰

6 하늘과 눈



시공찾집

15 처음으로 경락을 발견

2 천 년 중국의학이 옳았다

19 ‘주천이 통하다’에서 파룬궁의

신기함과 과학을 보다

22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천국세계’

사전문명에 대한 비밀탐구

24 조류 대뇌 연구 결과로 진화론에

질의 던진 과학자들

29 선진과학에 도전하는

사전시기 원자로

34 모헨조다로가 멸망한 비밀



반본귀진

- 35 한국 수학박사 :
완벽한 논리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
39 한 주에 세 차례 파룬궁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신기한 일
46 답안지

진상의 문으로 들어가다

- 48 CCTV 기자
“새겨둘게요, 시기를 기다립시다”
52 ‘최고법원 사이트’는 공개 사이트인가,
보안 사이트인가?

하늘과 사람의 경계

- 56 바둑과 수양
59 무엇 때문에 ‘동일한 판국의
바둑판이 없다’고 하는가?
60 신의 (神醫) 손사막은
도를 얻은 고수였다
67 병은 깊은 층의 연유 (緣由)가 있다



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는가?

1990 년 보이저 1 호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 변두리를 꿰뚫고 나갈 때 마지막에 사진기 렌즈를 지구로 돌렸습니다. 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망망한 하늘에서 지구는 거의 분간하기 어려운 하늘색 작은 점이었고 먼지 하나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할까요? 끝없는 창우에 과연 어떤 오묘한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색했고 과학기술로 더욱 넓고 미세한 곳을 향해 관측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사람들은 많은 불가사의한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사람 손바닥의 한 점을 1 배

수에서 10의 16차 배수로 확대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데시미터 (10 센티미터) 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핸드폰, 컵, 사발 등입니다.

0.1 마이크로 (0.0001 센티미터) 에 이르면 나선 모양의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인류의 세포 속에는 23 쌍의 염색체가 존재하지요.

100 옹스트롬 (0.01 마이크로) 에 이르면 DNA 분자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 옹스트롬 (0.0001 마이크로) 에 이르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인 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10 피코미터 (원자 단위의 길이 , 1 피코미터 = 옹스트롬의 1/100) 에 이르면 원자핵을 둘러싼 뾰뾰한 전자 구름을 볼 수 있는데 마치 끝없는 우주와 같습니다.

인체의 미세한 구조와 거대한 우주는 도대체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호에는 미국항공우주국 (NASA) 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천국세계’, 인체의 미세한 부분에서 한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육안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을 보아낸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나라 정관 (貞觀) 연간에 손사막이 붉은 실을 황후의 오른쪽 손목에 묶어 진맥해 당태종 이세민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한 넓고 깊은 전통문화 내용도 실었습니다.

《명백》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우주, 시공, 인체, 역사의 오묘한 비밀을 파헤쳐 인생의 참뜻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하늘과 눈

글 / 구이저우 (归舟)
정리 / 산허 (山河)

과학자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놀랐다. 맹인 화가의 뇌를 스캔해 보니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의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5 년,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터키의 시각 장애인 화가 아르마간 (Armagan) 이 그린 색채 풍경화가 실렸다.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실명한 그는 18 살이 되자 손가락으로 종이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산천과 호수, 집, 인물, 나비를 그렸다. 이런 경치를 보지 못하는 그가 색과 음영, 투시 비율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게 놀라웠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르마간에게 실험을 했다. 많은 유리잔을 탁자 위에 두 줄로 늘어놓고 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유리잔의 위치와 형태를 그려냈다. 또 아득히 뻗어 간 길과 길가의 전선주를 그려달라고 하자 아르마간은 웃으면서 1 분여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

과학자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놀랐다. 맹인 화가의

뇌를 스캔해 보니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의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인체에 신비로운 ‘제 3의 눈’이 존재하고, 정상인들은 너무 육안에 의존해 외부 정보를 받아들였기에 그의 능력을 퇴화시켰다고 여겼다. 아르마간과 같은 시각장애인은 세상의 모습을 자신 내부에서 헤아려야 했기에 이런 선천적 본능이 발달했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인체과학 연구 붐이 일어나면서 과학자들이 대량의 실험으로 특이공능이 있는 아이에게 밀폐된 봉지 속의 글자를 인식하게 했는데 정답률이 80% 이상이었다.

현대의학

‘제 3의 눈’의 존재를 증명

사람의 양미간 중심에서 뒤쪽으로, 뇌 가운데에서 뒤쪽으로 송과체(松果体)라는 기관이 있다. 많은 실험 결과 송과체는 빛을 감지하는 기관으로 밝혀졌다. 쥐는 망막이 없어 감광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송과체가 여전히 빛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송과체로 가는 광신호 전달 통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송과체의 구조는 망막과 매우 유사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송과체가 신비로운 ‘제 3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빛을 포착해 시신경의 전달을 거치지 않고 뇌에 직접 영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근대 과학은 ‘제 3의 눈’ (송과체)의 존재와 의미를 일찍부터 인지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마음과 물질적 몸이 공존하는 이원적 존재이며 송과체는 이를 통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 ‘영혼의 왕좌’라고 주장했다.

고대 문명 세계에서 어디에나 있었던 ‘제 3의 눈’

중국 고대에서는 송과체를 ‘천목(天目)’이라 불렀다. 전통적인 중의사는 ‘망(望), 문(聞), 문(問), 절(切)’을 말하며 육안진단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고대 유명한 중의사는 모두 천목이 열려있어 한눈에 환자의 표피, 근육, 오장육부, 골수에 이르는 모든 상황과 병의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편작(扁鵲)은 사람의 오장의 색깔을 보는 능력을 지녔다고 ‘사기’는 전한다. 편작은 제환공(齊桓公)을 네 차례 만났고, 매번 그의 몸의 병변 상태를 말했으나 제환공은 믿지 않았다. 나중에 제환공이 이미 골수에 병이 들어 구제할 약이 없게 되자 편작은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환공이 죽었다.

‘봉신연의’의 이랑신(二郎神) 양진(楊戩)은 제 3의 눈을 수련해 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불출호, 지천하. 불규유, 견천도.(不出戶, 知天下; 不窺牖, 見天道。)’라고 했다. 즉, 수련의 층차가 높은 사람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의 일을 알 수 있고, 창밖을 보지 않고도 천도만물의 운행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불상(佛像)의 머리와 미간 사이에 불안(佛眼)이 있다. 석가모니가 모래 한 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미시적으로 본 상황이다.

고고학자들은 내몽골에서 5000 년 전 상고시기 홍산 (紅山) 문화유적을 발견했는데 거대한 암벽화에 새겨진 인물 두상 미간에 제 3의 눈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송과체가) 육안 만개보다 낫다. 이곳을 뚫어야만 진리를 볼 수 있다” 고 했다. 디오니소스는 고대 로마의 주신 (酒神) 으로 그가 들고 있던 회향 지팡이에는 담쟁이덩굴 잎이 뒤섞여 있었고 꼭대기에는 송과 (松果) 가 있었다.

수메르에서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아시리아인,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바티칸까지 제 3의 눈에 대한 기록이 고대 문명 세계에 널리 퍼져 상징적 의미의 송과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고대인에게 ‘제 3의 눈’은 더 높은 지혜와 에너지로 통하는 통로이자 다리이며, 우리의 많은 비상한 능력과 불멸의 힘을 일깨울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천목, 우주 시공을 인식하는 통로

제한공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편작은 보아냈다. 제한공은 맨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다가 목숨을 잃었다. 오늘날에는 제한공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 진실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거나 자신이 볼 수도 이해하지 못하며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믿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미신으로 여긴다.

사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스펙트럼 중 좁은 ‘가시광선’ 영역에 불과하다.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수많은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현대과학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 전체 우주의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그 나머지를 ‘암흑물질’이라고 명명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아는 것은 유한한 원이고, 미지의 것은 원 밖의 세계이며 무한하다”고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생명의 비밀, 의식 현상, 특이공능, 종교 기적, 사전 문명, 다른 공간 등은 모두 현대과학 인식의 범주를 벗어났다. 사람의 지혜는 매우 크고 잠재능력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인식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인식될 수 있다. 실증 과학에서 인식되지 않은 많은 다른 사유 방식과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이 우리의 인식을 도울 수 있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해부해 경락을 찾을 수 없자 경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시대에 이르러 경락의 존재가 발견됐고 경락이 체내에서 전반적 조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의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시진(李時珍)은 ‘기근팔맥고(奇筋八脉考)’에서 “체내의 길은 내부를 들여다보는자만이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틀림없다”고 했다. 즉 가부좌 입정(入定) 중에서 천목으로 체내 경락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천목은 실재하며 천목이 열리면 우주의 시공간을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진정한 과학 정신은 다른 공간, 생명의 신비, 우주의

진실에 대해 열린 자세와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이다. 금지 구역을 두지 말고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인간의 지혜가 열리며 우리 공간을 뚫고 다른 공간의 본질과 진실을 볼 수 있다.

신불(神佛)과 만나 무신론이 무너지고 인생의 참뜻을 깨닫다

아인슈타인은 “오늘날의 과학은 어떤 물체의 존재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어떤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고 했다.

과학의 범위를 넘어 수련으로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려 불도신(佛·道·神)의 존재를 목격했다.

적지 않은 파룬궁 수련자는 수련 전 무신론자였으나 ‘전법륜(轉法輪)’ 책을 보거나 연공(煉功)으로 천목이 열려 회전하는 채색 파룬(法輪)이나 연화좌 위에 큰 부처, 선녀가 꽃을 뿌리는 모습, 아름다운 정자 누각 등 각종 다른 공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그 순간 무신론 관념이 무너지면서 신의 존재를 믿고 확고히 대법 수련의 길을 걷게 됐다.

부처는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하며 불가(佛家)에서는 마음이 경건해야 영험하다고 말한다. 신불은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으며 선(善)의 뿌리를 간직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신과 사람의 관계를 되찾고 생명의 목적을 깨달아 도덕 품성과 층차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국 빈사 경험 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다른 공간을 보았고, 일부는

잠시 천국에 들어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 대부분 사람은 세상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 크게 넓어졌다. 다른 공간의 존재와 사람은 영혼이 있으며 윤회 전생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격도 바뀌었고 도덕성이 강화되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더 온화해졌다.

수련자에게 신불(神佛)이 나타나는 것은 법을 얻어 수련하라는 점화(点化)다. 더불어 바른 믿음을 확고히 하고 수련의 신심을 강화하며 수련의 길에서 어려움을 뛰어넘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일부 파룬궁 수련자는 대법 경서를 읽다가 겹겹이 쌓인 불도신이 글자 뒤에 나타나거나 글자마다 금빛을 발산하는 것을 보았다. 또 수련 교류장에서 회전하는 파룬, 꽃을 뿌리는 선녀, 금붕황, 천마, 금룡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기한 생명 등 상서로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천목과 지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하는 ‘하늘’이란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미시적 입자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을 의미한다. 우주에는 층층의 미시적 입자가 있는데, 하늘 밖에 하늘이 있고, 물질이 미시적일수록 하늘의 층이 높아진다.

사실 천목의 층차와 지혜의 크기는 사람의 심성의 높낮이, 도덕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신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경지에 있다면 얼마나 미시적인 그 층에 들어가 그곳의 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류는 초기에 천성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워 누구나 ‘천목’을 갖고 있었다. 마야 예언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첫 태양기 남자는 키가 2m, 에메랄드빛의 제 3의 눈에 각종 초능력을 갖췄다. ‘산해경’에서도 기굉지국(奇肱之国) 사람들은 모두 일비삼목(一臂三目)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의 후천적 관념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실증과학과 현실적 이익 속에서 인간의 본능이 퇴화됐다. 연구 결과 송과체는 어릴 때 발달했다가 7살 이후 퇴화한다.

오늘날 다시 천목을 열려면 인위적인 기술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옛사람들은 ‘관천지도(觀天之道) 집천지행(執天之行)’을 말했다. 공자는 ‘이덕배천(以德配天)’을 말했고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우주의 특성 진선인(真·善·忍)에 동화하는’ ‘반본귀진(返本歸真)’을 말한다. 마음을 가다듬어 가부좌하고 마음을 정화해 도덕적 품성을 높이는 수련을 통해 천도를 본받고 천명을 따라 순수하고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야만 사람의 선천적 본능이 열리고 천지만물과 통할 수 있다.

신에 대한 믿음도 매우 중요한바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인솔하에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한다. 예컨대 각국 지도자의 운명을 여러 차례 정확히 예측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진 딕슨(Jeane Dixon)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가 예견한 광경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 중에 지혜가 열린 사례가

많으며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수련자는 스무 살 이전에 비교적 총명해 1979년 사범대학에 입학했다. 졸업 후 교육방면에서 업적이 뛰어났으나 사고, 표현, 처세 등 능력이 부족해 사람들 앞에 나서면 떨기도 했다. 과룬따파 수련 후 그녀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으로 바뀌어 한번은 직장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많은 청중을 상대로 자신이 쓴 산문시를 발언고 없이 낭송했다. 강연이 끝나자 누군가 즉석에서 특등상을 주라고 외쳤다. 타인을 위해 더 많이 지불하려는 선한 마음으로 그녀는 하늘의 가호를 받았다.

또 한 임신부는 임신 29주에 낙태를 결정해 의사가 무단 낙태한 후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었다. 3시간쯤 지난 뒤 쓰레기봉투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를 발견한 과룬따파 수련자 간호사가 주임 의사의 동의를 거친 뒤 버려진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샤오징롄(小淨蓮)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다. 호적을 올리지 못해 아이는 유치원과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세 살 때 외할머니가 ‘전법륜’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네 살 때 300쪽 넘는 정자체 ‘전법륜’을 읽을 수 있었다. 여덟 살 때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이르렀다. 순수함과 선함으로 지혜를 얻은 것이다.

밍후이왕에는 20여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은 칠순 노인이 ‘전법륜’을 읽을 수 있고, 호미를 든 농민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기한 사례가 발표됐다.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이 향상되면서 평범해 보였던 과룬궁 수련생들은 이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



처음으로 경락을 발견, 2천 년 중국의학이 옳았다

글 / 원화 (文華), 정리 / 예수 (叶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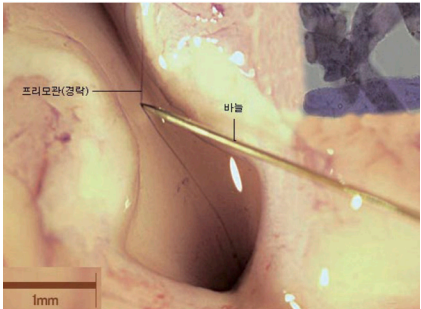
경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과학연구자들은 해부학 관점에서 경락 체계를 완전히 알아낼 수 없었다. 2011년에 이르러 한국 경락 연구자가 경락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과학자, 처음으로 중국의학의 경락을 보아낸다

2011년 10월, 한국 서울대 명예교수인 소광섭 교수를 비롯한 여러 경락 연구자들은 성과 발표회에서 토끼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매우 가느다란 경락통로를 발견했고, 염색으로 발색된 경락 사진도 한 장 얻었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인류가 처음으로 경락을 ‘보아낸’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사람들은 각종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경락의 존재를 증명해 왔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소광섭 교수는 한국융합기술원 수석연구원으로서 경락을 연구한 지 10여 년이 된다고 한다. 그의 팀은 새로 발견된 경락을 ‘프리모(Primo)’라고 명명했다. 발표회에서 그들은 경락 실험 사진을 한 장 전시했는데 사진 속의 프리모관(경락)은 투명하고 가늘어, 염색 없이는 관찰할 수 없는 가느다란 관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또 경락이 암세포 전이의 중요한 통로라는 것도 관찰했고 이 현상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암세포의 전이 경로가 혈관과 림프관 두 가지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토끼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발견한 매우 가느다란 경락통로.(프리모관, 바늘끝이 가리키는 머리카락 모양의 부위)

만약 경락 실험이 국제학술계에서 공인된다면 경락 체계는 혈액 순환계, 림프계 이외의 인체 세 번째 순환계가 될 것이다. 이는 2천 년 역사를 가진 중국의학이 서양의학보다 훨씬 진보된 이론과 실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세계적인 면역학 전문가이자 한국 국가급 스타 학자인 권병세 박사는 면역학을 40 년 넘게 연구하면서 림프관에 또 다른 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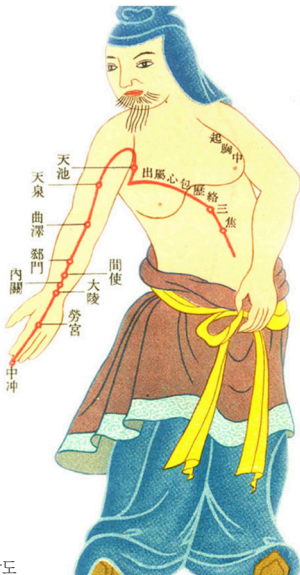
서양 과학에서 잇따라 경락의 존재가 증명

중국의학은 인체에 오장육부와 사지를 연결하고 기혈 에너지를 수송하는 경락이란 순환체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왔다. 그중 큰 것이 경맥이고 갈래가 맥락이며, 사람의

생기는 기혈의 유지와 영양에 달려 있다고 했다. 경락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긴다.

혈위는 경락선 통로에 있는 특수한 점들로서, 이러한 점들은 기혈의 집합, 전달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보인다. 그것들은 질병의 반응점일 뿐만 아니라 침구, 지압 등 임상의학의 자극점이기도 하다.

현대 해부학은 경락과 혈위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



인체경락도

고 혈관과 림프조직만 보아냈다. 이로 인해 서양의학이 장기간 중국의학의 과학성을 부정해왔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천박한 인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939년, 구소련 엔지니어 킬리안 부부가 최초로 계측기로 경락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들은 고주파 방사선 촬영술로 인체 곳곳을 촬영해 특정 부위에서 나오는 빛이 유난히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점을 그려냈는데 이는 수천 년 전 중국고대 경락이론의 741개 침구혈과 일치했다. 이는 과학기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나라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3년 북한 경락연구소의 김봉한은 ‘조선의학과학원 잡지학보’ 제 5호에 40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해 경락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다른 사람들이 중복해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다른 과학자들이 전기용량 전위, 적외선 열상 촬영 등 방면에서 혈위 특수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줬다. 1998년, 상하이 푸단대학은 경락혈위에 대응하는 심층 결합조직 구조에 풍부한 칼슘, 인(磷), 칼륨 등 금속원소가 들어있고, 이런 곳의 칼슘 함량이 혈위가 아닌 곳에 비해 40~200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경락에 대응하는 골간막 구조가 광섬유 다발 모양의 콜라겐 조직과 유사하다는 것도 찾아냈다.

전자생물공학의 발전에 따라 서양 과학자들이 육안 대신 전자기기를 이용해 혈위의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을 발견해 내면서 그때에야 중국 고대 의학의 오묘함에 감탄했다.

‘주천이 통하다’에서 파룬궁의 신기함과 과학을 보다

정리 / 예수 (叶书)

도가 수련문화에서는 기경팔맥을 열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했으며,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경지에 도달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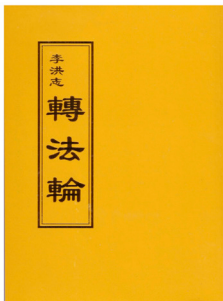


호킹 박사가 “우주에 대한 인식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정하는 러시아의 마스 보이 폴리스카는 일찍 고대 중국 문화가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는 또 중국 도가의 혈자리와 경락을 “인체와 다른 공간의 연결고리” 라는 창의적인 발언을 했다.

파룬따파 (法輪大法) 는 ‘진선인 (真 · 善 · 忍)’ 우주 특성을 지도 기준으로 하는 불가 (佛家) 고덕 (高德) 수련대법으로 많은 수련자가 입문하자마자 대주천 (大周天) 이 통하는 상태에 도달해 온몸에 병이 제거됐으며, 어떤 수련생은 ‘전법륜 (转法輪)’ 에 나오는 ‘백일비승 (白日飞升)’ 의 기묘한 상태가 나타난다.

‘산송장’이 운 좋게 대법을 만나 원기가 왕성해지다

밍후이왕 2022 년 5 월 15 일 장슈잉 (张秀英) 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올해 69 세인 그는 산둥성 관 (冠) 현 청베이 (城北) 가 사람이다. 30 년 전부터 위궤양, 고혈압, 간담결석, 심장병 등을 앓았으며 160cm 키에



몸무게가 32kg 에 불과했다. 베이징 301 병원 등 전국 여러 병원에 다니고 무당에게도 보였으나 여전히 헛수고였다. 이웃들 눈에 그녀는 매일 죽음의 변두리에서 몸부림치는 ‘산송장’이었다.

1992 년 11 월 13 일 오전, 장슈잉은 행운으로 관현 노간부 활동센터에 오신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을 뵙게 됐다. 자비로우신 대법 사부님께서 그녀의 몸 정황을 물으신 후 손으로 장슈잉의 정수리와 몸 전체를 몇 번 두드리셨다.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흠뻑 났는데 몇 년간 제몸에 썩어 있던 멍에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눈을 뜨라고 하시고 저는 특수한 다른 공간을 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다시 눈을 감으라고 하셨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을 치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몸에 모든 병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1999년 이전 창춘 (長春) 어느 연공장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연공할 때 찍힌 사진에 나타난 신기한 광채

대주천이 통하자 몸이 허공에 뜨다

관련 대법 전수반에서 장슈잉은 리홍쯔 선생님께서 대주천을 강의하시는 것을 듣고 만약 대주천이 통하면 사람이 바로 뜰 수 있으며 고서에서 말한 ‘백일비승’이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바로 그날 밤 장슈잉이 어렴풋이 잠들었을 때 몸이 허공에 뜨는 것을 느꼈는데 이불을 덮은 채로 위로 떴다.

장슈잉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집안 일을 할 수 있으며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과 파룬따파의 신기함이 단번에 작은 도시에 퍼졌다! 이때부터 그녀는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전통문화에서 예를 들어 ‘신선전’에 나오는 백일비승 현상도 적지 않다. 수련과 과학은 사실 모순되지 않으며 고집불통이야말로 과학정신의 천적이다. 파룬궁은 각종 진실과 신기한 현상으로 진정한 과학임이 실증됐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천국세계’

정리 / 예수 (叶书)

1994년 2월 8일 ‘위클리 월드 뉴스 (Weekly World News)’에서 최초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우주 중에 찬란한 ‘천국세계’ 사진을 발표했다. 당시 허블 우주망원경이 미국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 보내온 사진은 수백 장에 달한다.

이들 사진에는 아주 분명하게 망망한 밤하늘 속에 있는 비할 바 없이 찬란한 도시가 나타났다. 여자 연구원 메이슨 박사는 말했다. “허블 우주망원경 렌즈에 한 차례 고장이 발생해 우주인들이 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이 망원경이 처음으로 보내온 사진은 천변만화하는 색채와 빛이었습니다.”

NASA 분석가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 색채와 빛은 마치 신의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검사와 재검사를 거쳐 그들은 사진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또 저 도시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추론을 내렸습니다.”

NASA에서는 줄곧 자신들이 발견하고 촬영한 우주의 진실에 대해 인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에는 우주에서 비행하는 성계 모양의 방대한 선녀를 포함한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천국세계도 나
중에 메이슨 박사에 의해 드러난 것
이다. 메이슨은 NASA 의 내부 전문
가의 말을 인용해 이 도시 사진들이
틀림없는 천국이라고 표시했다. “왜
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좁고
공기라곤 전혀 없는 우주 중에서 생
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신께서 거쳐하시는
곳입니다.”

明



1994 년 2 월 8 일
위클리 월드 뉴스에
게재된 보도



캐나다 파룬궁 수련자가 연공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聰명한 앵무새 알렉스(Alex)는 빨간 블록이 몇 개인지 답할 수 있다.

조류 대뇌 연구 결과로 진화론에 질의 던진 과학자들

정리 / 샤오리 (晓历)

미국국립보건원과 미국국립과학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한 연구에서 조류 대뇌의 발달 정도가 포유동물과 비슷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경과학 전문가 29 명이 진화론에 질의를 던지다

신경과학 전문가 29 명은 조류와 포유동물의 관계성 이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여겼다. 이 새로운 관점의 논문이 2005 년 2 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 (Nature Reviews Neuroscience)》에 실렸다.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여러 종류의 유화 작품을 구분할 수 있고, 까마귀가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그 기능을 다른 새에게 전수할 수 있고, 앵무새가 인간의 단어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논문에서 사람들이 조류의 대뇌가 포유동물 대뇌에 비해 원시적이라고 여겨온 역사가 100 년이 됐으며 “이런 정확하지 않은 진화론에 기초해 포유동물의 대뇌를 서술한 이론이 20 세기에 광범히 사용됐다. 이는 과학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교류하고 발전시키는데 심한 영향을 줬다” 라고 밝혔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전의 명명법은 19 세기 루드비히 에딩거 (Ludwig Edinger) 가 제출했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생물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한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조류 대뇌와 포유동물 대뇌를 대할 때 완전히 같지 않은 개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논문의 제 1 저자인 미국 듀크 대학의 신경학자 에릭 자비스 (Erich Jarvis) 는 이 연구로 대뇌가 단계적으로 진화했다는 관점이 부정됐다고 밝혔다. 조류 대뇌를 ‘원시’ 영역으로 취급했는데 실제로는 복잡성이 존재하며 포유동물 대뇌와 유사한 처리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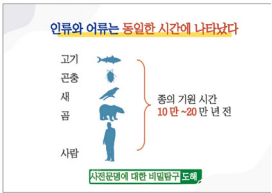
진화론이 ‘직립보행’할 수 없는 3대 맹점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한다고 여긴다. 다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논설을 제기했었다. 과학자도 진화론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3 개 의문점만으로도 이 가설을 뒤엎을 수 있다.

1 생명의 기원 문제

진화론에서 생물은 세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환경조건에 따라 다른 진화가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환경이 같지 않음으로 다른 생명이 생겼으며 그 선조는 같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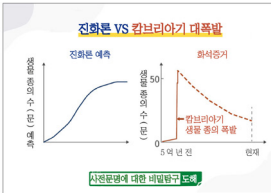
그럼 그 선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100년간 사람들은 이 문제로 끝없이 쟁론했다. 과학자 밀러는 모의실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지구는 초기에 천동번개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로 유기물이 형성됐고 끊임없는 발전을 거쳐 유기 다분자를 형성했으며, 이런



과학자들은 오늘날 인류를 포함한 지구에 존재하는 90%의 종은 10만~20만 년 전에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진화론 가설에서 중간 단계가 결여됐다.



다양한 동물 화석이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대량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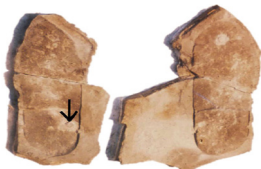
분자가 자발적으로 집결해 단결체를 형성한 후 번식과 생장 등 생명현상을 갖춰 점차 단세포를 형성했다고 여겼다.

이 실험이 보기에 꽤 이치가 있으나 충족한 유기물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려워 실제 성공 확률은 아주 낮으며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② 종(種)이 과도하는 증거 찾을 수 없어

진화론 학설에 따르면 생물은 하등에서 고등으로, 간단한 데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지층과 화석 연구를 통해 일부 생물이 쇠퇴하고 멸망하면서 다른 생물이 나타나고 흥성한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약 6500 만 년 전 공룡을 대표로 하는 대형동물이 멸종된 후 포유동물이 크게 발전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생물이 진화한 과도 시기 화석을 찾을 수 없다. 이 한 점으로라도 신화 같은 진화론 진상은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하등에서 고등으로, 간단한 데서 복잡한 것으로의 변화설은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을 해석할 수 없다.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초기인 2000 여만 년 사이에 갑자기 다양한 생명이 대량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의 동물을 형성했으며 동시에 공생하며 번영했다. 고생물학자는 이 현상을 ‘캄브리아기 생명의 대폭발’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초기에 더욱 오래된 지층에서 오랫동안 뚜렷한 선조 화석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생물의 종은 생물이 기나긴 진화를 거쳤다는 다윈의 이론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삼엽충 신발자국 화석
(화살표 : 삼엽충화석)

다른 한 방면에서 진화론은 인류는 약 180 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추측한다. 1968 년 삼엽충 발자국 화석이 미국에서 윌리엄 마이스터 (William J.Meister) 에 의해 발견됐다. 지질학자 리랜드 데이비스 (Leland J.Davis) 는 자세히 이 지역의 지질 상황을 연구해 화석이 발견 된 곳이 캄브리아기의 암석임에 틀림이 없다고 증명했다. 삼엽충은 5 억 6 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나타난 상고시기 동물로 지금으로부터 2 억 4 천만 년 전 페름기에 완전히 멸종됐다. 화석은 인류와 삼엽충이 같은 시기에 살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 화석의 발견으로 진화론과 심한 충돌이 발생했다.

③ 유전학 증거의 결여

진화론은 유전의 관점에서 고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개체에서 국부적인 것만 서술했다. 일부 사람은 다윈 시대에 유전자 공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대 생물 세포학 관점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생물의 진화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다수의 정황은 유전자가 쇠퇴해져 도태된 상황에서 생성됐다.

明

선진과학에 도전하는 사전시기 원자로

정리 / 샤오리 (晓历)



2005년 2월 20일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에서 발견된 20억 년 전 운전 (运转) 한 상고시기 원자로 사진을 공개했다.

1942년 페르미 팀이 시카고대학 비밀 실험실에서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30년 뒤 놀라운 고고학 발견으로 페르미 팀이 과학연구의 월계관을 벗어야 했다. 사실상 약 20억 년 전 원자로가 이미 이 지구에서 운행됐었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라면 그 시기는 인류가 출현하기 전이었다.

■ 이례적인 데이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다

부지그 (Bougzigues) 는 프랑스 프에르라트 기체확산 공장 엔지니어다. 1972 년 5 월 어느 날, 그는 천연 우라늄 원료를 설명서대로 분석하면서 이례적인 데이터를 발견했다. 한 샘플에서 U-235 함량이 0.7171% 로 나타나 항구불변 수치인 0.7202% 보다 낮았다.

그들은 기타 절대적으로 유용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질 수 없는 오점 없는 우라늄 샘플에 대해 분석한 결과 U-235 함량이 마찬가지로 낮았다.

그 후 그들은 생산 라인을 거슬러 가봉공화국 오클로 자연 우라늄 광산까지 추적해갔다. 놀랍게도 이 우라늄 광산에서 기원한 U-235 유용 광물의 함유량이 50% 넘게 낮았다.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과학자들은 이곳 우라늄 광산은 일찍 누군가 사용한 것임을 알게 됐다.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많은 과학자가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서 장기간 고찰한 결과 15 개의 원자로를 발견했고 이곳에서 20 억 년 전부터 가동돼 장장 50 만 년이나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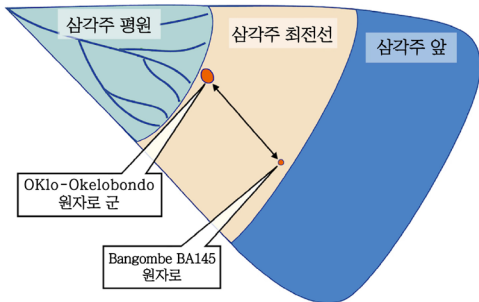
■ 완벽함이 현대 과학기술을 훨씬 능가

이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 핵분열 연쇄 반응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대량의 고농도 U-235 를 구비해야 하나, 천연 우라늄 광산의 우라늄 농도는 낮았다. 그 밖에 원자로에서 핵폭발이 발생하지 않게 보증하려면 반드시 중성자 감속재를 사용하고 원자로의 출력을 조종

하는 제어봉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지속적인 원자로 가동을 위해 반드시 우라늄과 감속재 혼합 비례가 정확해야 한다. 이 일체를 어떻게 해냈을까?

더욱 믿기 어려운 점은 원자로가 지하에 20억 년 가까이 묻혔으나 잘 보존됐다는 것이다. 그 외에 원자로 군이 위치한 지층의 삼각주 지역은 물 공급이 충족하고 평탄하며 넓은 얇은 물 지대여서 원자로를 건축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깊을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다. 만약 지하 환경 온도가 200℃를 넘으면 암석에 변질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묻히고 온도가 조금 더 높았더라도 원자로 지역이 현재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없었다. 원자로가 소



오클로 자연 우라늄 광산 Oklo-Okelobondo 과 Bangombe 원자로 사전시기 위치.

제한 분지가 침적하면서 지층의 변형이 적었던 점도 수 많은 연구원을 경탄하게 했다.

또 오클로 광산 구조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예를 들면 이 원자로는 수천 미터 길이로 거대했으나 주변 환경에 대한 열량 교란이 원자로 지역 주변으로 40 미터 내로 국한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원자로에서 생긴 폐기물이 확산되지 않고 광산 주변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20 억 년 전의 대형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인류가 건축한 원자로는 너무나 낙후했다.

■ ‘자연형성’ 가설

이런 성숙한 기술, 적절한 구조, 완벽히 보존된 원자로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과학계의 누군가가 20 억 년 전 오클로 우라늄 광산의 U-235 함량이 매우 높아 U-235에서 생긴 고속 중성자가 지하수를 거치며 감속되고 통제되면서 저속중성자로 변해 연쇄 반응이 천천히 발생했다는 ‘자연형성’ 가설을 제출했다. 원자로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많은 물이 증발해버리면서 연쇄 반응 속도가 늦춰지고 규모가 작게 변해 원자로 온도가 내려가거나 불이 꺼질 수 있었다고 가설했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지하수가 다시 모이면서 저속중성자가 많아져 연쇄 반응이 가속됐고 원자로 온도가 높아져 다시 점화돼 가동되면서 이렇게 20 억 년간 반복됐다고 했다.

이런 가설이 어찌 보면 이치가 있어 보이나 수많은 문

제를 해석할 수 없으며 둘러맞출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연’ 가설은 우라늄 광산 평면이 어째서 유역 형태와 비슷한지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우라늄 광산으로 형성되려면 지하수가 원활하게 순환 되고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돼야 하는데 깊은 층의 지하수 산소는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해석할 수 없다.

1952년부터 2011년까지 60년 동안, 현대 상용 원자로에서는 33차례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순전히 자연조건 하에서 한 개 원자로가 지속적으로 1주일간 이라도 운전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50만 년간 15개의 ‘자연’ 조건이 상이한 원자로가 어떻게 전부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었을까? 물 환경, 중성자 독극물 처리, 탈규소, 지층의 침전, 핵연료 소모, 사암 점토화, 틸새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벽하고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해 장장 수십만 년 동안 운전할 수 있었을까?

■ 사전문명은 확실히 존재

진화론 가설로 해석할 수 없는 상고시기 문명에 대해 현 과학기술은 일률로 ‘자연’에 밀어버리고 있다. 사실 《성경》 창세기와 수많은 인류 상고시기 문헌에 모두 기재됐었는바, 사전시기 인류는 매우 높은 문명에 도달한 적이 있으나 인류 도덕의 타락으로 신에게 소멸됐다.

사전시기 오물로 원자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만 믿고 맹목적으로 잘난 체하거나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明

모헨조 다로가 멸망한 비밀

정리 / 샤오리 (晓历)

모헨조 다로는 5 천여 년 전에 존재한 인도의 고대 도시다. 이곳 길가, 더욱 많게는 거실에서 대량의 유골이 출토됐다. 인도의 고고학자 카하는 출토된 사람의 유골을 분석하고 “9 명의 백골에서 모두 고온으로 가열된 흔적을 발견했다” 고 말했다.

붕괴한 수많은 건축물에서 사람들은 트리니타이트를 발견했다. 이 물질은 물체표면이 순간적으로 고온에 용해한 후 다시 신속히 냉각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수소 폭탄 폭발 현장에서라야 이런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모헨조 다로와 소돔의 멸망에서 모두 갑작스러운 고온에 강타 받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소돔이라는 도시는 음란함과 신의 사자를 살해하려 한 죄로 인해 신이 최종적으로 불살라 버렸다. **明**



모헨조 다로 유적



한국 수학박사 :

완벽한 논리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아

정리 / 쯔구이 (子归)

현윤경 박사는 한국 국가출연연구소 데이터분석팀 팀장이며 수학자로 팀과 함께 수학을 이용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예측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석 달’ 걸쳐 읽은 책

현 박사는 어려서부터 우주의 구조나 피라미드 제작의 원리, 시공, 윤회와 전생 등을 고민해왔다. 2003년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던 그는 지도교수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달은 인공구조물인가? 자연 물체는 자전하거나 공전하는데 달은 왜 한쪽 면만 보이는가?” 현 박사는 지도교수와 한참을 진지하게 토론했다. 말을

마친 교수님은 그에게 《전법륜 (转法轮)》을 건넸다. 현 박사는 “교수님이 주신 이 책 속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꼭 다 읽고야 말겠다” 라고 다짐했다.

현 박사에게 독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마음먹으면 하루에도 몇 권씩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쉽지 않았다.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 매일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장을 겨우 읽고 졸다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 읽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책을 다시 두 번째 읽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 책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새롭게 알고 깨닫게 됐다. “저는 과학적 상상을 좋아했죠. 늘 위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분자고, 은하계가 다시 분자가 되고, 그 성단이 모여서 다시 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법륜’을 읽었을 때 아래로도 미시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읽을수록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 책을 놓지 않게 되더군요.”

미국 유학 생활 중에도 어디를 가나 가방에 ‘전법륜’을 챙겼고 틈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완벽한 논리를 만나다

수학자의 두뇌는 “유레카!”를 위해 24시간 풀가동이다. 끊임없이 머리로 논리나 구조, 해법을 고민하고 찾아내기 때문이다. 퇴근 후 잠자기 전에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다.

그런 그에게 수련은 오아시스 같았다. “일주일에 한번 계곡산에 갑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소리를 들으며 2시간 동안 연공하고 오는데 완전히 힐링이 됩니다. 고민하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수련서를 읽고 나면 ‘리셋 (초기화)’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수련생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면 상화로운 장 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도 씻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현 박사는 특히 파룬따파 (法輪大法)에 대해 “말 그대로 큰 법”이라며 기타 기공과 다르다고 말했다. “저는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사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수학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법은 논리를 한층 한층 들어가 봐도 비어있는 부분이 없고, 맹점이 없이 완벽한 논리 구조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다

수련을 시작할 무렵 현 박사는 건강 체질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수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 박사는 말했다. “수련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알게 된 것, 그것이 파룬궁 수련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진 (真), 선 (善), 인 (忍). 이 우주의 특성 세 가지의 가치로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되면서, 결국은 착하고 바르게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수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연구소 생활을 하더라도 작은 이익에 안면몰수하며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제를 따내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면 더 없이 넓은 세상’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경우는 문제 앞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관조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된 것, 이것이 대법 수련 후 얻은 또 하나의 수확입니다.”

현 박사는 매일 새벽 네 시 반이면 연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9년간 우직하게 수련의 길을 걸어온 현 박사. 그는 “여전히 새롭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많은 분이 수련으로 건강과 행복을 얻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明



《전법륜 (轉法輪)》은 40여종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 지역에서 발행됐다.



한 주에 세 차례 파룬궁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신기한 일

정리 / 쑤구이 (子归)

캐나다 켈거리 대학 학생인 캐롤라이나 아벤다노 (24세)는 1년 반 전에 발생한 일로 인생이 바뀌었다...

“2020년 11월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다른 카페에 들어가려 했었지요. 카페 보드판에 비치된 전단지 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바탕의 전단지에 한 남성이 해변에서 가부좌하는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파룬궁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온라인 무료 강좌’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제가 찾던 거였어요.”

공허한 영혼 달랠 길 없어

아벤다노는 켈거리 대학에서 혼자서 9개월간 생활했다. 그녀는 전염병 통제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만 참석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더욱 괴로웠다.

“대부분 시간을 아파트에서 혼자 보냈어요. 당시 음식점에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셨지요. 엄마가 콜롬비

아에 계시는데 6 년간 못 봤고, 아버지도 다른 도시에
서 지내고 계세요. 언니는 결혼했는데 봉쇄령으로 서
로 만날 수 없었어요.”

아벤다노는 전통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나 페
미니즘과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빨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과외 수업을 두 개 하고
온라인 자원봉사를 하며 대학에서 수학 및 교육을 공부
하는 등 바쁘고 생산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랠 수 없었
고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다. 꾸준히 다이어트
를 하다 보니 저체중이 되었고 결국 섭식장애와 두통까
지 오게 됐다. 생리는 1 년 넘게 멈췄다.

아벤다노는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영혼을 잃었
어요.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
었고 심한 두통이 생겼지요. 가족들에게 통화로 제 상
태를 털어놓을 수 없었고 불안했으며 친구들과도 만나
지 못했어요. 완전히 길을 잃은 거죠.” 온라인 대화 중
에 그녀의 강마른 얼굴을 보고 가족들은 걱정했다.

한 주에 세 차례 파룬궁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신기한 일

아벤다노는 전단지를 받은 후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보고 파룬궁을 알게 됐다. 그녀는 또 파룬궁과 태극권,
기공의 차이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전단지에 설명
된 무료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기로 하고 연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온라인 강좌가 무료라는 점이었어요. 누구나 신청하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 주에 한번 수업에 참가했다.

“저는 매우 즐거웠고 좋았어요. 저는 공법을 가르치는 분에게서 손동작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스스로 연공했다.

불과 3일 후, 1년 넘게 멈춘 생리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랐다. “기뻐고 조금 놀랐어요.” “와,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거야!”

진정한 건강의 길
전 세계 수 천만 사람들의 건강과 활력과 행복을 지켜 준
수련의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파룬궁을 온라인 화상 강좌로 배워보세요. (learnfalungong.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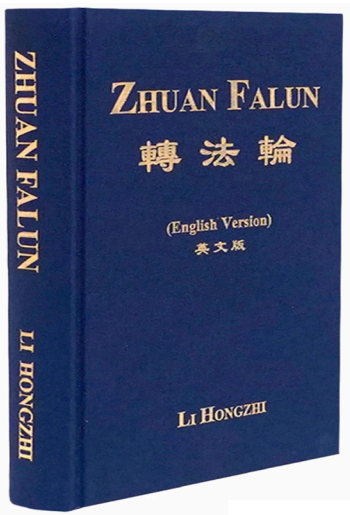
**Path to a Happier
& Healthier You**

Discover the power of self-cultivation. Learn what keeps tens of millions around the world happy, healthy, and energized.

Try Falun Gong Today

며칠 후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일하던 중 그녀는 캘거리 대학 파룬궁 동아리가 주최한 영화 포스터를 봤다. 그녀는 동아리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다룬 영화 상영에 초대받았다. “그 영화에서 박해에 대해 알았어요. 박해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아벤다노는 나중에 온라인 무료 9 일 학습에 참석해 리홍쯔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봤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말마다 캘거리 시내에서 단체 연공을 시작했다. 친절 한 수련생이 그녀에게 영어로 된 《파룬궁》 책을 줬다. 다른 수련생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 단체 법공 부에 초대했다. 그렇게 아벤다노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을 시작한 후 아벤다노는 몸이 변화함과 동시에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남학생들로 둘러싸인 건물에서 혼자 살았기에 머리를 짧게 잘랐다.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어요. 그들 중 많은 남학생이 때때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라 사람들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게 하려 했어요.”

수련하기 시작한 후 아벤다노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록 내버려 뒀다. 또 가족에 대해 갖고 있던 많은 오랜 원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어려움을 생각했다. 에드먼튼에 사는 아버지는 가족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콜롬비아에 있는 어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셨다.

파룬파파 수련을 시작한 후 아벤다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들은 제게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그녀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은 바로 수련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문제에 휘말리기보다 자신을 그냥 제쳐 두고 그분들을 도왔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많이 도왔고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이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점차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녀는 이전에 물질이식에 더 집중하고 항상 자기가 직장에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했다. “일을 끝내지 못하면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꼈는데 너무 공허했어요. 인생의 의미는 취직하고 직장에서 성공해

세계 여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는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벤다노의 변화에 부모님도 걱정을 내려놓았다. “파룬따파로 제가 바뀐 후 그분들도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언니도 ‘확실히, 넌 변했어. 더욱 즐겁게 변했어’라고 말해줬어요.”

사부님께서 주신 귀중한 보물

“2년간 전염병과 1년 반의 수련 끝에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대법을 지지해 조화와 평화를 얻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대법을 지지해서 얻은 거예요. 아버지는 제 영상 제작과 다른 파룬따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녀는 파룬따파 전파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러 오타와에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수련생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법을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연이에요. 대법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에요.”

“중국인 수련생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들이 생명으로 믿음을 견지하는 것에 탄복하며 그들이 겪은 고난과 믿음의 힘은 저에게 큰 격려를 줬고 진정한 희망을 줬어요. 특히 저희 세대는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피상적인 것과 쾌락을 원하죠.”

“그래서 전통을 돌이켜보면 세상이 늘 그랬던 것은 아

님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가치관이 있었고 응집력과 공생이 있었으며 정신적인 추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었어요.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우주 특성에 동화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벤다노는 사람들이 본성이 순수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파룬따파를 이해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파룬따파는 우리에게 결함이 있고 집착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본귀진(返本歸真: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해야 합니다. 파룬따파는 우리에게 수련에서 향상할 기회를 줬고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明



연공하고 있는 아벤다노

답안지

정리 / 쑤구이 (子归)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파룬궁 수련자다. 아래는 수련의 시험에서 해낸 일부 답안지다.

답안지 1

10년 전 어느 날, 핸드폰 전화요금 카드에 1천 위안이 들어왔다. 선전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당시 급여가 800 위안이었고 연공인이므로 공짜로 생기는 돈을 가져서는 안 됐다. 잠시 후 학부모가 자신이 보낸 것이며 다른 뜻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즉시 회신했다. “선생님, 좋은 뜻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답해서 나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해 설 전에 나는 이 돈을 홍바오 (세뱃돈)로 나누어 그의 부모님과 두 아들에게 보내며 그들 일가족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권했다. 결과 그들 일가족 모두 탈퇴했다.

이후에도 잇달아 학부모들이 봉투에 1천 위안을 넣어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분필통 밑에 놓고 갔다. 나는 발견하는 대로 학생에게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게 했다. 또 일부 학부모는 이야기하는 중에 신속히 주머니에 1백 위안, 2백 위안, 3백 위안을 넣어주는데 나는 모두 완곡하게 거절했다.

한번은 숙제를 검사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또 핸드

폰 요금으로 9 백 위안을 보내면서 ‘디자인 비용’이라는 메모 문자도 함께 보냈다. 나는 그녀가 잘못 보낸 거로 여겨 즉시 회신했다. “여사님, 돈을 잘못 보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잘못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회신했다. “정말로 잘못 보내신 겁니다.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서야 그녀는 내 이름과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같아 잘못 보낸 것을 확인하고 “선생님은 정말로 직업 도덕 수준이 높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답안지 2

자녀를 교육하면서 나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감화를 준다. 언행으로 몸소 모범을 보이고 은연중에 ‘진선인(真·善·忍)’으로 가르쳤다. 고생을 겪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재물과 이익을 답답하게 보며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하며 일을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고 가르쳤다.

아들 친구의 학부모도 교사인데 우리 아들의 행위를 보고 온라인에 나에게 대해 이런 평가를 했다. “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대함에 덕으로 어질고 자애롭게 하며, 이치로 감화시키고 자신의 행위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왕 선생님을 따라 배우자!(좋아요)”

진정한 수련인으로 되려면 ‘진선인(真·善·忍)’ 대법으로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가늠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평소 일사일념, 일언일행을 ‘진선인’으로 가늠하고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실수하는 말을 했을 때 무조건 자신에게서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노력해 닦아버린다. **明**

CCTV 기자 “새겨둘게요, 시기를 기다립시다”

정리 / 산허 (山河)

파룬궁을 먹칠한 ‘1400 사례’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CCTV 기자의 인터뷰가 사실 진상을 알려줄 것이다.



1999년 7월, 중공이 전면적으로 파룬궁 박해를 개시한 초기에 파룬궁을 포함한 소위 ‘1400 사례’(파룬궁을 수련하다 1400 명이 죽었다는 거짓말)를 공개했다. 중공은 마스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이용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중의 동정심을 이용해 파룬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겼다. 결국 이런 거짓말이 버젓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이유가 됐다.

그럼 파룬궁을 먹칠한 ‘1400 사례’는 어디에서 왔는가? CCTV 기사를 따라 ‘1400 사례’ 중 하나인, 산둥성 린이시 명인현 타오쉬진 스자수이잉 마을에 사는 스정산의 둘째 딸이 ‘파룬궁을 배워 사망한 사건’ 진위를 파헤쳐보자.

이 사건이 명인 TV, 산둥 TV에서 보도된 후 2000년 음력 7월 CCTV 기자가 상급의 지시에 따라 스정산을 찾아 ‘파룬궁을 수련하면 약을 못 먹게 하며 주사를 못 맞게 해’ 사망했다는 증거를 촬영했다.

스정산은 군대에서 8년을 보낸 후, 은퇴해 마을의 서기 겸 회계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심장병과 위염으로 이 일을 그만뒀다. 그의 아내 마칭란 역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위염, 장염, 관절염, 자궁종양 등을 앓았다. 그녀는 1995년에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절개 부위에 커다랗게 혹이 생겨 통증이 심했다. 배로 바람이 쉽게 스며들어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면 조끼를 입어야 했고 집안일도 할 수 없었다.

1997년 1월 28일, 스정산의 아내는 친구의 추천으로 파룬궁 9일 강의를 시청했다. 5일째 되는 날, 절개 부위는 더는 아프지 않았고 큰 혹도 사라졌다. 스정산의 심장병과 위염도 사라졌다.

CCTV 기자가 인터뷰하려고 하자 심신으로 수혜를 본 스정산은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인터뷰 통지를 받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마을 간부들은 당황했다. 스정산을 찾지 못한 기자는 하는 수 없이 상사에게 그의 인터뷰 거부를 알렸다. 상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라!” 라고 지시했다.

마을 간부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동안 기자는 사흘을 기다렸다. 이들은 동네를 돌며 친구, 가까운 친척, 먼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스정산을 찾지 못했다. 아내 마칭란이 기회를 이용해 기자에게 실상을 이야기했다.

2000년 2월 16일, 타오쉬 파출소 부국장 리장샹과 경찰 두 명이 스정산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그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른 채 경찰차에 밀어넣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스정산의 둘째 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졌다. 응급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그녀는 3일 후에 사망했다.

명인현 선전부는 정부 자금을 얻기 위해 파룬궁에 대한 혐의를 날조하는 특수 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스정산의 딸이 파룬궁을 수련했고 투약과 주사를 거부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방송용으로 녹화하기 위해 스정산에게 대본을 읽어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 스정산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 마을 공안은 전담팀을 조직했다. 전담팀은 스정산의 옷을 벗기고 나무 의자로 때렸다. 너무 세게 때려서 의자가 부서졌다. 그들은 스정산이 기절할 때까지 나무 막대기로 계속 때렸다. 스정산은 갈비뼈가 부

러지고 얼굴은 보랏빛으로 멍들었으며 눈은 피투성이였다. 다치지 않은 부위가 없어서 혼자서 눕거나 일어날 수 없었다. 구타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스정산의 아내가 기자에게 말했다. “민중이 가장 믿는 건 기자이고 가장 만나고 싶은 게 기자입니다. 진짜 기자가 왔는데 남편이 왜 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딸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고 1만 6천 위안(한화 약 311만 원)의 벌금을 문 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경찰의 폭력에 충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 없으며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 리 사부님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칭란이 눈물로 말하고 기자도 눈물을 흘리며 듣고 나서 말했다.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실화임을 믿습니다.” 마칭란은 “그들은 파룬궁을 타격하기 위해 시비를 전도했고 우리를 구타하고毆박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했으니 사실을 폭로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기자에게 질문했다. 기자는 “새겨둘게요, 제가 받드는 건 공산당이므로 시기를 기다립시다” 라고 답했다.

스정산을 찾은 후 스정산 부부는 기자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라고 알렸다.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연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백 가지 이로운 점이 있어도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는 공법이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했다.





작은 실험의 비밀

‘최고법원 사이트’는 공개 사이트인가, 보안 사이트인가?

‘최고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2013 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네티즌은 이곳에서 쉬저우(徐州) 평현 법원이 판결한 유괴여성 이혼 상소가 무효라는 여러 건의 판결문을 찾아냈다. 법원은 이미 결혼했기에 유괴죄를 묻는 게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네티즌은 이런 판결문을 많이 찾아냈다. 그 후 평현 법원은 유괴여성 상소 사건을 기각한 판결문을 삭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2020 년 8 월까지 ‘최고법원 사이트’에 게재된 판결문이 1 억 건, 방문량이 480 억 회를 돌파했다. 형사, 민사, 경제 등 사건은 모두 공개했으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었다.

1999 년 장쩌민 집단과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발동했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평균 600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중공에게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6 년 1265 명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 2017 년 974 명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 2018 년 933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 2019 년 789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 2020 년 615 명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 2021 년 1184 명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이상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최고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결과는 ‘0’건으로 법원이 전부 감췄다. 그렇다면 중공은 무엇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을 사이트에 공개해 민중이 수시로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심문이 무법, 무규율, 무근거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 2011 년 3 월 1 일 신문출판총서령 제 50 호 문서에서 파룬궁 서적에 대해 출판을 금지하는 문건을 폐지했다.

● 공안부에서 인정한 14 가지 사교조직에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다.

● 공소인은 형법 제 300 조에 근거해 ‘법률실시파괴’로 파룬궁 수련자를 기소했으나, 수련자가 어떻게 법률실시를 파괴했고 어느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었는가? 파룬궁 수련자 기소는 성립되지 않으며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심문 기록을 거짓말이 습관이 돼 버린 중공이 어찌 공개할 수 있겠는가?

明

파룬따파 전파 30 주년, 홍콩 수련생들이 시민에게 희망 안겨줘



1. 홍콩 많은 공원에서 매일 아침 파룬궁 연공음악이 울려 퍼지며, 시민들이 잇달아 수련자 행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홍콩 수련생이 메이 푸 라이 치 콕(MEI FOO Lai Chi Kok) 공원에서 연공하는 모습이다.
2.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홍콩 파룬궁 수련생이 여전히 길가에서 세인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폭로하는 자료 배포를 견지하고 있다.
3. 2020년 9월 홍콩 천제서점(파룬궁 서책 전문점)이 침사추이 변화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알 기회를 제공했다.



**SHENYUN(선원) 대만에서 공연
총통 등 백여 명 정계인사 축하 메
시지 보내**

2022년 6월 선원예술단이 14번째로 대만에 방문해 순회공연을 했다. 차이잉원 총통, 라이칭더 부총통, 여러 중앙부처 장관들, 입법위원, 의원, 각 지방정부 고위인사들 100여 명이 공연 주최 측을 통해 선원예술단에 축전을 보냈다.

바둑과 수양

정리 / 구거 (古歌)



바둑은 일찍이 요임금 시기에 기원했다. 진 (晉) 나라 《박물지》에 “요임금이 바둑을 만들어 아들 단주에게 가르쳤다”고 기재했다.

요임금의 적자 단주는 빈둥거리며 놀기 좋아했고 마음을 조용히 할 줄 몰랐으며 허위적인 말을 하고 쟁론을 즐겼다. 하루는 요임금이 강가에서 두 명의 선인이 푸른 측백나무 아래에 마주 앉아 모래에 금을 긋고 흑백 돌로 전술도를 펼친 것을 보게 됐다. 요임금이 선인에게 다가가 어떻게 아들 단주를 교육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한 선인이 대답했다. “단주는 쟁투는 잘하지만 우매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 그 정이 한가해질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모래 격자에 놓인 돌을 가리키

며 “이건 혁평 (弈枰) 이라 하며 바둑이라고도 한다네 . 네모난 바둑판은 정 (靜) 이고 둥근 바둑알은 동 (動) 이라 , 하늘과 땅의 이치를 본받은 것이라네 .”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단은 바둑을 배운 후 과연 진보했다고 한다 .

이로 보아 고대인이 바둑을 만든 목적은 승부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정서함양으로 심성을 닦고 교양을 쌓는 과정이었으며 지혜를 더하고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

바둑은 또 천상의 역경과 관련된다 . 바둑판은 우주가 360 개 천체로 구성된 것을 상징한다 . 따라서 바둑판은 가로세로 19 곱하기 19, 총 361 개 바둑점이 있는데 남은 하나는 중심의 한 점으로 천원 , 즉 태극이며 우주의 중심을 대표한다 . 360 이라는 숫자는 과거 역서에서 일년이라는 날수였고 , 사 등분 해 춘하추동으로 정하고 흑백 바둑돌은 각각 밤과 낮을 대표한다 .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둑판은 《낙서 (洛书) 》를 모방했다고 한다 . 간쑤성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한 남북조 시기의 《기경 (棋经) 》에는 ‘361 도는 주천의 도수를 모방한 것’ 이라 기재됐다 . 흑백 두 가지 바둑돌은 음양을 상징했다 .

《좌전 (左传) 》에 따르면 바둑은 춘추전국시기에 널리 유행했다 . 당나라 때에 전례 없이 유행했고 당현종은 특히 바둑 기사에게 ‘기대조 (棋待诏)’라는 9 품 관직까지 내렸다 . 이들은 ‘화대조 (画待诏)’ , ‘서대조 (书待诏)’와 함께 한림원에 예속돼 통일적으로 ‘한림’이라 불렸다 .

수련인 입장에서 보면 바둑은 팔괘, 주역, 하도, 낙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번 인류 문명시기의 산물이 아니며 사전(史前) 문화다. 사실은 신께서 인류에게 전해준 문화로서 ‘이 물건은 단지 하늘에만 있어야 한다.’ 《이현만연(梨軒漫衍)》에서는 ‘바둑은 처음부터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며……신선이 심신을 닦고 도를 즐기는 도구였다.’

일부 사람은 중국의 장기는 유가의 기(棋), 바둑은 도가의 기라고 비유해 말하는데 꽤 적절한 표현이다. 장기의 수차마포사상병(帥車馬炮士象兵)은 각자가 움직이는 규칙과 직책이 있어 공자가 말하는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하라’와 같은 이치다.

바둑은 어떠한가? 흑백 두 가지로 조목조목 이루어진 틀의 제한이 없어 변화무쌍하다. 1 음 1 양을 도라고 하며 물극필반, 과유불급, 외세(外勢)와 실지(實地), 전쟁하지 않고 모든 적군을 항복시키는 것 등등 모든 이치가 형상적으로 바둑판에서 재연되고 있다. 정말로 박대정심(博大精深)하고 현묘, 무궁해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고이래 얼마나 많은 제왕재상, 문인, 상인, 평민이 바둑을 지겨움 없이 즐기며 아름다운 이야기, 수려한 문장과 시, 심지어 병서책략, 치국방침 등을 남겼던가.

현대에 이르러 많은 바둑 기사가 바둑에 대한 이해는 점차 그 배후의 함의와 경지에서 멀어져 완전히 컴퓨터식 재간으로 돼 승부를 나누는 목적으로 됐으며 심지어는 컴퓨터로 대체한다. 바둑의 도가 거의 실전된 것이다.

어찌 바둑뿐이겠는가? 고대에서 각 업종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淨心) 하고 호흡 조절(調息)을 중시했으며 경지와 내포를 추구했다. 바둑 두는 풍격은 그 사람과 같고, 글의 풍격은 그 사람과 같다. 인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줬으나 사람은 도덕 경지의 수양을 상실했다. 물질이익의 유혹 하에 타산에 밝아졌고 공적과 이익, 승부를 따져 점차 사람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를 상실했다. **明**

무엇 때문에 '동일한 판국의 바둑판이 없다'고 하는가?

정리 / 구거(古歌)

바둑의 형식은 간단해서 흑백 두 가지 바둑알에 규칙도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바둑의 현묘함은 기타 어떤 종류의 기(棋)도 비할 수 없다. 361 개 바둑점은 변화가 무궁해 1 초에 한 가지 바둑의 기형을 센다고 가정하고 전부의 기형을 헤아리려면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

심괄은 《몽계필담》에서 바둑 판국의 변화 수량을 말할 때 '대략 숫자 1만을 43번 연이어 적은 것과 같이 판국의 변화가 크다'라고 했다. 즉 3의 361 차 제곱이다. 때문에 '천고이래 동일한 판국의 바둑판이 없었다'는 설이 있게 된 것이다. **明**





신의 (神医) 손사막은 도를 얻은 고수였다

글 / 구거 (古歌)

손사막 (孙思邈)은 당나라 초기의 사람으로 102세 까지 살았다. 7살에 매일 천여 자를 낭독할 수 있었고 20살에는 장자, 불경과 제자백가의 학설을 즐겨 읽어 당시 낙양 총관은 그를 '성동 (圣童)'이라 불렀다.

후주의 선제 시기에 손사막은 왕실의 잦은 번고와 세상 기풍이 날로 떨어지는 것을 탄식하며 종남산에 은거했다. 수나라 문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를 국자박사로 임명했으나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50년 후에 한 성인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를 도와 세상을 구제할 것이오”라고 말했다. 50년 후 당태종 이세민이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평생 의술을 펼치며 약을 채취했다. 그는 산서 (陕西)의 태백산 (太白山), 종남산 (终南山), 산서 (山

西)의 태항산(太行山), 하남(河南)의 송산(嵩山), 그리고 사천(四川)의 아미산(峨嵋山)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단방, 경험방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후세인을 위해 《천금요방(千金要方)》과 《천금익방(千金翼方)》이라는 거작을 남겼는데 중국 고대 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손사막이 신선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그를 ‘약왕’으로 불렀다.



손사막 청전장본
(清殿藏本)

여덟 근 반의 쥘신과 은침 한 대

손사막은 높은 산에서 사부를 따라 여러 해 의술을 배웠는데 도덕과 품성을 갖추어 사부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다.

손사막은 하산 후 사부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심전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어디에 가든 치료를 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손을 쓰기만 하면 사람이 죽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책망하고 비웃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역병을 피하듯이 그를 쫓아냈다.

그는 풍찬노숙의 곤란을 겪었고 사람들의 냉대 속에 굴욕을 당해야 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산으로 돌아가 사부에게 고충을 하소연했다. 사부는 말했다.“네가 받은 고통을 나는 모두 알지만, 너의 짚신이 여덟 근 반으로 자라면 곧 좋아질 것이다.”

손사막은 다시 사부에게 예를 올리고 하산했다. 예전과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펄로 덮인 연못을 헤치고 나가는 중에 짚신이 거의 모두 찢어졌다. 겨우 연못을 빠져나가 큰 나무에 기대서서 풀을 비벼 꼬아 짚신을 묶었다. 수리를 마치고 보니 짚신이 뚱뚱하고도 무거웠다.

잠시 후 장례 행렬이 곡을 하며 다가왔는데 들고 있는 관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손사막이 다가가 핏자국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을 뒤쫓으며 외쳤다.“멈추시오!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소.”

손사막이 관을 내려놓게 했지만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따라가며 말했다.“난산으로 죽은 사람이 맞는지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모도 출혈이 멎지 않아 사망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살릴 수 있으니 빨리 관을 내려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들으니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해 관을 내려 뚜껑을 열고 치료하게 했다. 손사막은 은침 하나를 꺼내어 정확한 혈 자리를 찾아 찔러 넣었다. 오래지 않아 산모가 “아!”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사람들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감탄사를 토해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아기의 낭랑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른과 아이를 모두

구한 것이었다!

이튿날, 손사막이 떠나려 하자 온 가족이 은전으로 사례를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고 새 신발 한 켤레만 받았다. 산모의 남편이 헌 짚신을 버리려 하자 손사막은 못내 아쉬움이 남아 저울을 찾아 무게를 달았는데 정확히 여덟 근 반이 나왔다!

그때 이후로 은침 한 대로 두 사람을 구한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미담으로 널리 전해졌다. 신기하게도 그 때부터 치료만 하면 정말 병이 나왔다.

실을 묶어 진맥하고 태종의 의심병을 제거하다

당나라 정관 시기에 태종 이세민의 장손황후(長孫皇后)가 임신하고도 열 몇 달이 넘도록 분만하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어의가 치료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태종은 날마다 수심이 가득했다. 대신 서무공(徐懋功)의 추천으로 손사막을 황궁으로 불러들였다.

고대 중국에서 인간은 아주 높은 도덕 이념을 준수해야 했으므로 어의는 황족 여성을 진찰할 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 손사막은 도를 닦는 신의(神醫)로, 가느다란 실의 진동에 근거해 인체의 맥상(脉象)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는 붉은 실을 꺼내 궁녀를 시켜 황후의 오른쪽 손목에 묶게 했다. 손사막은 대나무 발을 통과해 나온 실의 한쪽 끝을 잡고 진맥을 했다.

좀 지나서 황후의 맥을 감지해 곧 병의 원인을 파악했고, 황후의 오른쪽 중지(中指)에 침을 놓으라고 했다. 황후는 순조롭게 분만해 황자를 낳았다.

정관 초년에 당태종은 한 차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다가 산꼭대기에서 적군에게 포위당했다. 그가 산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마실 때 피로가 쌓여 머리가 어지러웠고, 모자에 부착된 용 모양 옥 장식이 물에 비쳐 작은 뱀으로 보였다. 이후 그는 늘 자신이 물을 마실 때 그 작은 뱀을 삼켰다고 의심했다. 그는 개선 후 조정으로 돌아왔지만 생각할수록 구역 질이 났고 구토까지 하다가 결국 병을 얻었다.

궁중의 어의가 지은 약 몇 제가 모두 효과가 없자 위징(魏徵)이 다시 손사막을 불러 진료하게 했다. 손사막이 보니 태종의 얼굴에 병색이 없고 뱃속에도 이물질이 없었다. 병의 원인을 들은 후, 손사막은 먼저 태종에게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을 지어주고 이어서 태종이 출정할 때 썼던 모자와 한 대야의 물을 가져오게 해 당태종에게 보여줬다. 태종이 대야 속에 용 모양이 비친 것을 보고 홀연히 깨닫자 순식간에 마음속 의혹이 사라지고 병도 나았다.

하늘의 도(道)에 순응하고 덕을 근본으로 수행해 반본귀진하다

당시의 명사 송지문(宋之問), 맹선(孟洗), 노조린(盧照隣) 등은 모두 스승을 대하는 예로 손사막을 대했다. 노조린은 손사막에게 “명의께서 병을 치료하심에 그 이치가 어떠합니까?” 라고 가르침을 청했다.

손사막은 말했다. “천도(天道)의 법칙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필연적으로 인간사에 관여할 수 있고, 인체를 투철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역시 반드시 천리에 따

라야 하네. 천인(天人)이 상응, 상통하며 인체의 음양과 자연계는 결코 무슨 차이가 없다네. 인체의 음양이 균형을 잃으면 신체 표면에도 각종 비정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데, 명의가 병을 치료함에 성인(聖人)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아 일체를 천리의 정도(正道)로 되돌린다네.”

송나라 왕희맹(王希孟)의 《천리강산도》에서
고대인의 천인합일의 사상과 경지가 충분히 체현됐다.



손사막은 의덕(医德) 규범을 의(醫)의 가장 앞자리에 놓았다. 또 대의정성(大医精诚)을 언급했는데 즉, “무릇 참된 의사는 병을 치료함에 정신을 편안히 하고 뜻을 굳건히 하며, 욕심과 구함이 없어야 하고 먼저 대자비심과 측은지심을 발해야 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부 구하겠다는 맹세와 염원이 있어야 한다. 빈 부귀천을 묻지 말아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가 나쁜 친족이나 친한 친구, 굵거나 밍게 생긴 사람, 무지하거나 똑똑한 사람을 나누지 말고 다 똑같이 대하며 가족 처럼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 자신도 덕으로써 수신(修身)하고 솔선수범했다. 손사막은 흔한 질병의 처방전을 비석에 새겨 자기 집 앞

길가에 세우고 사람들 스스로 그 처방대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손사막은 사람됨에 있어 천도를 엄수하고 덕을 수련하며 선(善)을 쌓아야 한다고 여겼다. 선덕(善德)을 널리 쌓고 마음이 선량하면 복은 자연히 오래 지속될 것이며, 반드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장수할 것이고 내외의 백 가지 병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심성이 선하지 않으면, 설령 영약을 먹을지라도 장수할 수 없을 것이고, 천리를 위반하면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사막은 평생 도를 수행했기에 고금을 통달할 수 있었으며 천문역법을 추산해냈고 많은 일을 먼저 알고 깨달았다.

당나라 위징(魏徵) 등은 당태종의 명을 받아 제(齊), 양(梁), 주(周), 수(隋) 등 5 대사를 편찬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을까 봐 여러 차례 손사막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런데 손사막이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역사를 전해주어 다들 기이하게 여겼다.

동대시랑 손처약(孫處約)은 손정(孫挺), 손경(孫儼), 손준(孫俊), 손유(孫侑), 손전(孫恮), 이렇게 아들 다섯을 데리고 손사막을 알현한 적이 있다. 손사막은 “손준은 가장 먼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손유는 비교적 늦게 출세하며, 손정의 지위가 가장 높을 것이고, 재난이 나면 병권을 잡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훗날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됐다.

손사막은 수련해 최후에는 진인(眞人)이 됐다. 당고종 영순(永淳) 원년(서기 682년) 아침에 손사막은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에 단정히 앉아 자손

들에게 “장차 무하지향 (无何之乡)에 오르면, 신 (臣)은 금궐 (金闕)에 있을 것이니라”라고 했다. 이는 곧 “나는 장차 승천하면 천정 (天庭)에서 관리가 된다”는 뜻이다. 손사막은 이 말을 마치고 잠시 후 숨이 끊어졌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외형이 변하지 않았고 시신을 관에 넣었는데 관이 가볍기로 옷과 같았다. 송대 (宋代) ‘운자칠첩 (云笈七签)’에 따르면 손사막은 ‘가사 (假死)’의 방식으로 이미 득도해 신선이 된 것이다.

明

병은 깊은 층의 연유 (緣由)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Edgar Cayce, 1877-1945)는 최면 상태에서 병을 진찰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리게 된 사례 1만 4306개를 해명했는데 병에 걸린 원인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긴 것을 발견했다.

고관절 결핵으로 모진 고통을 받는 소녀가 있었다. 케이시는 그의 전생을 해독했는데 그는 로마제국 네로 왕조의 귀족이었다. 네로는 기독교인을 경기장에 넣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도록 명했다. 그 소녀는 한 젊은 여자아이가 사자에게 물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연민의 마음 없이 순교자의 고통을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 그의 고관절 결핵은 그가 기독교인이 고통을 받을 때 웃어 벌을 받은 것이었다.

바른 믿음을 박해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보응을 받을 수 있다. 중공의 독해로 파룬따파 수련자 납치와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오직 중공의 당단대 (党·团·队) 조직에서 탈퇴해야 속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明



유화 《기독교 순교자의 최후의 기도 (The Christian Martyrs Last Prayer)》는 고대 로마에서 기독교 신도를 잔혹하게 박해한 상황을 묘사했다. 경기장 주위 기둥 왼쪽에는 화형을 당하는 기독교 신도이며, 오른쪽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기독교 신도, 중간에 있는 한 무리 신도들은 이제 곧 맹수에게 찢겨질 것으로 보인다.



‘삼퇴’로 평안을 지키다

2004년 대기원(大紀元)에 체계적으로 공산당의 본질을 명백히 논술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9평》은 40여 종 언어로 세계 각지에서 전파됐는데 ‘공산당을 해체하고 있는 책’으로 각인됐으며, 기세를 막을 수 없는 ‘삼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 큰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2022년 8월까지 4억 명이 글로벌 탈당센터에 ‘삼퇴’를 성명했다.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해 ‘영원히 당을 따라가겠다’는 독한 맹세를 해제해 연루되지 말기를 바란다. 신계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며 진심으로 ‘삼퇴’해야 한다. 실명, 가명, 애명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탈당 사이트에 접속하길 바란다. tuidang.epochtimes.com

더 다양한 내용은 봉쇄를 돌파해 파룬파와 밍후이왕에 방문해 알아보시길 바란다. www.minghui.org.

봉쇄돌파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 :

컴퓨터 PC 버전 :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 <https://j.mp/fgv88>

안내 :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해 드린다.